



空士校同窓會報

會長：崔恒基

發行人：高承萬

發行：五星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두번째의 同窓會誌를 펴 내면서!

會長
崔恒基(3期)

滿 3年前에 再出帆한 五星會가 昨年 이맘때 한 번 消息誌를 豫備役 同門들에게 傳한 적이 있었습 니다.

그 후 지난 1年 동안, 第3次 任 員(1期~12期 豫備役)이 不足하 지만 然과 誠을 다하여는 보았습 니다만, 實力도 未洽하고, 알 려드릴 만한 거리들도 不足하여서 이제서야 겨우, 그것도 別로 신롭 치 못한 內容들을 담아, 여러 同門 들(1期~44期)에게 傳해 드리게 된 것을 大膽히 悚懼스럽게 겨여칩 니다.

歲月은 어느덧 많이 흘러서 저 희 第3期들이 入校하였을 때만 해도 2年半 남짓하면 "우리를 永遠의 基地, 空軍士官學校"는 永校50 周年을 맞이하게 됩니다; 江山이 變하여도 다섯번은 變한 嵩지 않은 歲月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年半 남짓하면 "空士의 첫 卒業生들을 輩出한지 滿 50年이 되는 해(2001年 8月)"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半世紀에 이르고, 約 6千名 以上의 卒業生들이 輩出된 空士同窓會 가 아직도 軌道에 進入 못하고 一年에 겨우 한번, 그것도 變번치 못한 內容들만을 담아서 同門들에게 消息을 傳할 能力밖에 갖추지 못한 것이, 率直한 우리들의 自認像 이기도 합니다.

여기 두번째로 펴내는 消息誌는 主로, 空士同窓會의 앞날에 堅固한 기틀들을 마련하기 爲하여 지난 一年 동안 第1期 任員님들로부터 第20期 任員님들에 이르기까지의 眞摯한 懇談會誌를 通하여, 그리고 現役 同門들을 指稱·管轄하고 있는 前職 및 現職의 空軍參謀總長 님들과의 隔意없는 書信·對話를

을 通하여, 서로 提議되고 論議되고 合意點들을 擧出하게 된 內容 들을 基盤으로 第3次年度의 理事會와 總會를 通하여 모든 卒業同 門들의 總意를 收斂코자 하는 內容 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잠깐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조 용히 생각해 보면; 卒業生 個個人이나 各期別 同期生會들은 모두 가 例外없이 없여져지는(ADE AWAY!) 存在들이 아닌 수가 없지 만, 空軍士官學校와 空士同窓會만 은 大韓民國(空軍)과 더불어, 永綴 되어질 存在들이 아니겠는지 겨여 집니다.

開校後 約 44年만에 再發足을 보게된 空士同窓會가 그 먼 훗날 에 이르기까지의 位相을 定立하는 苦惱를 겪어온 지난 3年이라는 期間은 어찌면, "코끼리를 더듬는 장님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는지 自省하여 보아집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는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라 고 하고, 그 배(腹部)를 더듬어 본 이는 "무슨 소리! 코끼리는 분명 히 벽(壁)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또, 또, 또...(主張, 論議)

空士同窓會 位相과 志向方向을 摸索하는데도 그 동안 여러가지의 목소리들과 主張들이 있어 왔습 니다.

- "여는 同窓會와 마찬가지로 돈 만 있으면 다 解決된다."
- "會長이 되는 사람은 優先 돈 이 있고, 돈을 많이 내어 놓는 사 람이어야 한다."
- "在鄉軍人會도 있고 보라매會, 期生會, 其他... 많은 모임들이 있 는데 五星會가 왜 또 必要한 것이 나?"
- "지난날에 積立되었었던 五星

會 基金은 어디에 간 것이나?"

- "왜 五星會이나? 空士出身將軍 들의 모임인 줄 알고 있었다."
- "陸士 11기생의 모임이 五星會였고, 陸士 5기생의 모임도 五星會라 고 하는데, 이제는 正當하게, "軍武(軍)會"가 되어야만 하지 않 겠느냐?"
- "同窓會라면 會員들에게 消息誌를 적어도 年4회 以上은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 "同窓會費(會員의 基本會費)는 當然히 하루 速히 釀出되어야 한 다."
- "會費를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는 同窓會가 되어야 한다."
- "事業을 하여, 그 利鑫으로 運 營基金을 삼아야 한다."(等等의)

논이 뜨겁고 트인 사람들이 보 고 있는 "코끼리의 實相"은 分明 히 기둥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또 담백한 처럼 되어 있는 것도 아니 지만, 全體를 볼 수 없는 장님들로 서는 그런대로 一理도 있고 또 그 立場에서 本 部分的인 實相들은 眞實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千인이 千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내어야만, 結局에 가서 合意點이나 公約數를 擧出할 수 도 있겠습니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코끼 리의 實相이 舍혀 省略한 모습으 로 그려진다면, 그 結果는 바로 千入 모두의 被害와 傷處로 남게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니다.

空士同窓會의 位相과 實相이 果 然 어떤 것이며 무엇이어야 하겠 는지를 必考하게나마 그려보려고 第20期까지의 代表들과 더불어 勞 心患思하여 온 것이 지난 一年동 안의 行跡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結果들을 大略 整理하 여 모든 同門들에게 此際 알려드 림으로써 보다 積極的이고 自發的

인 同參을 通하여 앞으로 더욱 活 潑한 對話의 廣場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모든 同門들이 同等한 立場에서 本 同窓會誌를 通하여 그 無垢하 고 出衆하신 識見과 經綸들이 담 아져서 워어져 나아가게 된다면, 韓國의 기나긴 歷史 가운데 처음 으로 誕生되어진 空士와 空士同窓 會는, 바로 우리 모든 同門들의 손 으로 튼튼한 基盤위에 세워져서, 成長과 發展을 거듭하는 가운데, 善한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어 나 아갈 것으로 確信되어집니다.

그 善한 열매들은 바로, 우리 同 門들 自身의 값진 生命을 潤澤하 게 만들고, 이 나라의 領空을 지켜 갈 綿綿히 이어질 後進들에게는 健全한 精神의 礎石이 되며 이 나라의 社會人들에게는 "誠實한 軍人과 軍出身들에 對한 두터운 信賴와 사랑들"을 차츰 심어 나 아 가게 될 것으로 믿으면서 第4次年 度부터는 同門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本 會誌가 모든 同門들에게 配 達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 신 各期의 期生會長님들과 寄稿하 시는라 많은 精誠들을 쏟아주신 여러 同門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 리면서, 特別히 寄稿分野가 아니시 면서 本誌의 編輯과 校正 및 印刷 에 이르기까지 많은 心血들을 傾 注하여 주신 事務總長 高承萬 同 門과 第20期 副會長 金永柱 同門 (空士 博物館長)에게 同門 모두의 眞心으로부터의 感謝를 모아 傳 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同門들의 內 家庭과 하시는 善 한 일들에 恒常 크신 恩臨이 함께 하시리라 祈願드리면서 두번 제의 同窓會誌가 "콜럼브스의 달 갈"이 되어져서, 앞으로의 半世紀 · 1世紀에 이르는 星武裝 出身人 들의 "이 나라의 國防과 統一祖國 의 領空守護와 星武裝의 進化한 發展 그리고 星武裝 出身人들 모두의 값진 生命을 裝飾"하여 나 가는데에 微고 작은 보탬이 되어 졌으면 합니다.

1996年度 定期總會 召集公告

本會 會則 第13條에 依據, "1996年度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 이 開催코자 하오니 空士同門들(正·准會員)께서는 公私間 多忙 하시더라도 勿디 枉臨하셔서 會則第2條의 善한 目的들을 具現 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同參이 계시길 鄭重히 拜望합니다.

[아 래]

1. 日 時：1996. 6. 27(木) 16:00
2. 場 所：空軍會館(서울 新大洞 方面)
3. 主要議題：第3次年度 理事會(96. 5. 29)에서 審議·議決된 事項들：
 - 가. 第3次年度 會務概況 報告(理事會 議題 要約)
 - 나. 會則 第2條(目的) 및 第21條(財源)에 關한 "運用細則 定立案" 報告(任員會議 및 理事會議 合意事項)

- 다. 會則：第1條(名稱), 第4條(會員의 區分), 第5條(會員의 權利)의 一部 改定·補完案
- 라. 第4次年度 任員 選任 및 業務計劃(豫算)案 마. 其他
4. 參席會費：없음(第3期會에서 諸經費 負擔),
5. 親交 및 交勳：參席同門들 間의 親交와 交勳을 爲해서 總會直後에 簡素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니다.
6. 其他事項：① 招請外賓은 없으며 本會會員(正, 准)에 局限한 조용한 行事을 치르코자 합니다.
 - ② 參席하실 수 없는 本會 理事님(1期~20期)과 期生會長(21期~44期)께서는 必히 添附된 委任狀으로 應信, 拜望합니다(會則 第12條).

※ 添附：委任狀

母校에 관한事項

(어느 程度까지 알고 계십니까?)

▲ 연 혁

- '49. 1. 14 : 金浦 基地에서 陸軍 航空士官學校 創設
- '49. 10. 1 : 空軍 獨立과 同時 空軍士官學校로 改稱 開校記念日을 3. 15로 設定
- '50. 6. 28~'58. 12. 12 : 6·25 戰爭으로 大方洞 定着까지 濟州, 鎭海, 泗川 等 轉轉
- '51. 8. 5 : 第1期 士官 卒業 및 任官 83名(鎭海)
- '56. 4. 10 : 最初로 理學士 學位 授與
- '58. 12. 12 : 서울 大方洞 基地로 移動
- '66. 4. 11 : 士官學校를 星武臺로 命名
- '71. 10. : 教授陣이 開發한 로켓 發射 成功
- '76. 3. 27 : 24期부터 工學士 學位 授與
- '85. 12. 21 : 忠北 清原으로 移動
- '87. 3. 27 : 35期부터 文學士 學位 授與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恩	率	信	沈	公	信	責	誠	清	容	空士十訓
威	先	賞	着	平	義	任	心	廉	儀	
兼	垂	必	果	無	一	完	服	潔	端	
備	範	罰	取	私	貫	遂	從	白	正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豫備役 會員 現況

'96年 3月 現在

期	轉役總數	國內	海外	期	轉役總數	國內	海外
1	56	41	15	20	38	35	3
2	112	89	23	21	33	30	3
3	111	91	20	22	40	39	1
4	80	72	8	23	38	38	0
5	126	109	17	24	33	33	0
6	57	49	8	25	32	32	0
7	75	66	9	26	23	20	3
8	68	64	4	27	18	17	1
9	54	45	9	28	14	14	0
10	51	50	1	29	8	8	0
11	54	50	4	30	21	21	0
12	48	41	7	31	7	5	2
13	48	48	0	32	2	2	0
14	52	51	1	33	7	7	0
15	44	40	4	34	1	1	0
16	37	34	3	35	11	11	0
17	46	43	3	36			
18	43	41	2	37	13	12	1
19	49	45	4				

1期~37期 轉役總數 : 1,550名 國內 : 1,394名 海外 : 156名
 1期~20期 轉役總數 : 1,249名 國內 : 1,104名 海外 : 145名

공군사관학교 교가

최응덕 작사
김성태 작곡

우리 - 는 기 - 념 - 는 배 - 달 의 - 아 - 들
하 - 늘 - 을 배 - 우 - 는 - 젊 - 은 이

높 - 고 빛 - 나는 한 - 배 - 님 경 - 신 이 어 - 받 - 아 서
높 - 고 참 - 다운 군 - 대 의 경 - 신 새 - 로 - 이 - 족 세

우 - 리 에 - 면 - 지 - 키 - 고 가 하 - 늘 - 로 - 초 - 나 - 니
나 - 라 - 를 지 - 키 - 는 힘 하 - 늘 - 로 - 달 - 린 - 다

우 - 리 - 들 명 - 훈 의 - 기 - 지 - 공 - 군 - 사 - 관 - 학 - 교
우 - 리 - 들 충 - 성 의 - 근 - 천 공 - 군 - 사 - 관 - 학 - 교

(후렴) 하 - 늘 - 은 우 - 리 의 일 - 터 - 요 - 새 - 움 - 터

하 - 늘 - 에 살 - 면 - 서 하 - 늘 - 에 - 목 -숨 - 바 - 신 - 다

공군사관학교 졸업 동기생회 명칭

기수	명 칭	기수	명 칭	기수	명 칭
1	홍우회	20	침익회	39	가치놀
2	이공회	21	여명회	40	해밀회
3	삼정회	22	쌍매회	41	혜루회
4	사봉회	23	출매회	42	푸르매
5	신성회	24	웅비회	43	다솜회
6	일성회	25	위운회	44	다물회
7	철성회	26	아람회	45	
8	판진회	27	석로회	46	
9	은하회	28	애채회	47	
10	십천회	29	뒤조회	48	
11	비성회	30	창로회	49	
12	은성회	31	한돌회	50	
13	폐공회	32	벽공회	51	
14	충조회	33	비호회	52	
15	성익회	34	한울회	53	
16	승운회	35	청람회	54	
17	방우회	36	한얼회	55	
18	옥매회	37	한나래	56	
19	태성회	38	청송회	57	

Ⅲ. 期生會 動靜(消息들)

삼정회 보고 (3期生會)

"Beautiful! What a beautiful sight!" 1954년 11월 1일,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제3기 졸업 및 입관식에 입학하셨던, 당시의 대통령 겸 이승만 박사의 축하 한마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천자봉 산자락에 남해의 일출봉이 바라다 보이는 진해의 한 구석에 허술한 십여동의 가교상 건물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섰던 곳: "우리들 영원의 기지, 공군사관학교"는 그때 그렇게 쓸쓸한스러운 모습으로 있었건만, 평생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노(老) 정치가의 눈에는 그 곳에 도열하고 있었던 "젊은 BLUE UNIFORM 들의 모습들"이 어찌면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비치었을지 모른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후손들의 축복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싸우시다가 고귀한 삶을 희생하신 先烈들(殉國하신 공사출신 동문들을 포함하여)께서, 지난 3월 15일에 펼쳐졌던 "공사 제44기 졸업 및 입관식"의 그 장엄함에도 부푼은 광경들을 굽어 보시고 계셨다면, 어찌면 "후회없는 값진 인생을 살았노라" 하시면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고 계시길, 경건히 기원하여 마지않는다! 특별히, 6월에 들어선,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3년동안, 한 지붕 밑에 자고, 한 손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정이 들어버린 보금자리는, 평생을 보듬어 주며 배어 버릴 수 없는 "우리들 영원의 기지"가 아닐 수 없다.

그 아름답고 정든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뿔뿔이 입지도 향하여 흩어져 간지 40여년, 지금 우리는 삼정회(三鼎會)라는 이름으로 모인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삼정이 같이 안전되고 의연하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이릅니다!

총원 143명, 사고 26명, 현재원 117명. 사고 26명은 순직 15명, 타계 11명. 현재원 117명 중에는 해외 거주 22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런 저런 행문(?)으로 사관학교를 중도에 떠난 동기들은 특별회원으로 대접했었다. "우리도 정회원이어야 한다"는 당시자들의 목소리에 모두가 공감하여, 우리는 하나로 합쳤다. 이제, 나이 60대 중반에 들어 서 있지만 아직도 30여명이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하며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고, 태반은 명예(榮耀)를 겸한 전임(前任)에비여 공군장교로서 조국의 발전된 모습과 후진들의 능률한 모습들을 경회로움 속에 감사하며 지켜보고 있다.

중늙은이들이 되었건만, 만나면 스스럼없이 너, 나 또는 형 정도로 불하고, 때로는 장군, 교수, 박사 등 전·현직의 직위를 불러 존중한다.

동호인끼리 들판도 거닐고, 산에도 오르고, 고기도 낚고, 매해 두어 번, 모두가 모여서 잔치도 벌인다. 오랜 군생활과 모진 환경에서 각고의 성장을 하여 온 탓으로, 늙숙한 언행 속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투박한 늘변(訥辯)이기는 하나 진솔(眞率)해서 좋다.

정치니, 권세니, 돈이니, 명예니

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겠지만, 우리들은 항간에서 흥분하고 있는 일들에 비교적 淡淡하다. 천황성립제도, 정삼적 사고를 하는 보통군인으로 험한 세월들을 헤쳐왔기 때문이다. 이제 느긋하게 노년들을 즐기면서 귀거래사를 읊어 보자! 우리들은, 한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다 잃었어 성실하 마친 사람들이나, 군의 일들이나 나라의 일들은 현재에 그 일들을 맡고 있는 후진들(보다 젊고 지혜로운)에게 맡기고, 다만 攝理의 神에게 기원하는 일이 있을 뿐이겠다.

여기 우리가 그리던 조국이 있고, 가정 있고, 처자시에다 손자들이 즐비하여 있다. 거기다가 궁색하지 않을 정도의 연금도 있고, 넉넉한 예비역 공군장교들이니; 뭐 그만하면 된거 아닌가?

그리고 "삼정회"로서도, "오성회 재건"에 한 그늘진 구석을 나름대로 있는 힘껏(물심양면)을 다하여, 정령백백하게 성심 성원하였으니, 교묘와 분문들에게 지은 많은 빛들도 조금은 덜하게 되지 않았는지?

공군 만세!
삼정회도 만세!

(손철영)

사병회 보고 (4期生會)

1. 4봉회 정기총회 개최

4봉회(4기생 회) '95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5월 불참이 무르익은 관악산 기슭에서 회원의 참석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장단의 임기, 운영위원의 구성, 회비납입에 관한 사항, 경로사랑 내용조정, 회원 사무실 개설 등 많은 의제를 가지고 활발히 토론하여 좋은 의견을 집약 조정 하였습니다.

< 회의개요 >

- 일시 : 1995년 5월 5일
- 장소 : 관악산 성주암 인근 광장
- 참석인원 : 33명
- 토의사항 : 회칙개정 및 동기생 사무실 설치건

2. 4봉회 사무실 설치

오랫동안 바라고 논의되어 오던 자체 회원 사무실을 10월 21일 많은 회원들의 참석리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회원끼리 바둑, 장기 등을 두거나 관악산을 등산하고 돌아오는 길 또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어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확인합니다.

< 사무실 설치 개요 >

- 개소일시 : 1995년 10월 21일
- 개소장소 : 관악구 봉천 7동 1609-2호
- 전화번호 : (02) 882-0171

신성회 보고 (5期生會)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오성회 소식지를 발간하므로 모든 회원과 안부를 나누게 되었음을 다함께 경축합니다.

며칠 전 최학기 총동창회 회장님으로부터 오성회 소식지에 실릴 5기생 근황 소개를 원고에 담아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오성회 소식지 발간 사업이 좀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시작된다니 다들스런 일이라 생각하며, 문득 때 오른 옛 선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란, 친한 벗들을 만나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학문을 닦고 덕망을 쌓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공사를 나온 우리 동문들이 오성회지를 통하여 지난 날의 근황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전우애를 다지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과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두 환갑이 넘은 우리 5기생 회원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잠시 되돌아 보면: 저희들은 6:25동란 중 천자봉 기슭에 자리잡은 진해 모교에 1953년 4월 1일, 250여명이 가입교하여 1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동년 4월 10일 215명이 정식 입교를 하였습니다. 4년간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57년 4월 10일 159명이 졸업과 동시 공군소위로 임관하였으며 현재 작고한 회원 33명을 제하면 남은 입관동기 회원은 126명입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에는 109명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입교동기 5명이 과거 수십년간 정회원으로 동참하고 있어 현재 5기생의 총회원은 131명입니다.

우리 입교할 당시의 상황은: 3년전에 걸친 2차 전쟁으로, 전국사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으며, 설사 판문점에서 진행된 휴전회담이 성사가 되어 평화가 온다 하더라도 언제 2차 전쟁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불신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난세였기에 많은 젊은 이들이 국과 학업에 대한 두개의 목적을 동시에 쫓지 못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름처럼 떠돌아 공사를 지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저희 5기생 회원은 각각각색의 인물이었으니 고경달, 박성환, 배종학, 이춘일 회원 등입니다.

저희 5기생의 특징은: 회원의 연령에 차이가 심하고, 개인 성격이 다양하며, 전국의 평문고 출신들이고 그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연소측은 35년생으로 김상락 회원 등 8명이며, 가장 나이많은 회원은 29년 10월 11일생으로 수년 전에 작고한 안병기 회원으로 무려 6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또 졸업 이후 차인된 나이많은 기혼 회원 4명이 있었으니 고경달, 박성환, 배종학, 이춘일 회원 등입니다.

고교 3년 졸업 후 사회경력을 갖고 5기생으로 들어온 사람으로는: 공군고참 상사 출신의 지승환 생도가 중도 퇴교하였고, 현재 미국에 사는 최경근 회원은 육군대학 장교에서, 김근 대한항공에서 퇴역한 김영진 회원은 서울 공대생에서, 손정희 회원은 광주 초등학교 선생에서, 고경달 회원은 경주 군청 서기에서, 박용직 회원은 서울에서 인민군에 강제 징집 당한 후 탈출하여 5기생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희 회원들의 다양성을 좀더 보면, 입교 이후 생전 처음으로 기차를 보았다 는 거제도 섬사람인 김상근 회원이 있는가 하면, 당시 대구의 보정통을 주름잡고 누볐다는 신봉림 회원이 회사 생도가 된 일은 아직도 많은 회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 5기생 회원의 전국 명문 고별 분포를 경기도 요악하여 보면 서울지역은 경기도 3명, 서울고 10명, 용산고 2명이고, 지방은 대구 경북고 12명, 광주고 4명, 대전고 6명 등으로 상당히 충실한 편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5기생은 다른 기생에 비하여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학교출신별 성분도 양호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생별 역대 공군참모총장 출신을 보면 저희 기생만이 무관의 기수로 기록되어 심히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것이 저희 회원들로 하여금 좌절할 줄 모르는 동기를 부여하고 오늘날도 왕성한 활동력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많은 회원들 탄생시킨 원천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현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으니: 박용태 회원이 아시아나 항공 고문으로 박중식, 문창수, 손빈희 회원이 대한항공 교관으로, 장재명 회원이 동국대 공대학장으로, 배수현 회원이 한양대 교수로, 이선근 회원이 세종대 교수로, 박석환 회원이 대구대 교수로 각각 몸적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분야에서 는 정재식, 김재수 회원이 대우에서, 삼성항공에는 유준현 회원이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는 이재우 회원이 5기생 회장으로 정보통신부 예하의 신설 기구인 "정보보호원(센터) 초대원장"으로 지난 4월 1일 취임하였으며, 한국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인 한필승 박사가 대전에서 원자력 관계 사설 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그밖에도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한국무역의 김두만 회원, 유니시스(주)의 김삼근 회원, 우진실업의 손경희 회원, 삼일사무기(주)의 성보영 회원, 감동 삼화건설의 윤인두 회원 등의 촉망받는 사업가들이 지칠 줄 모르는 정열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쟁은 최후에 건실히 살아 남는 자에게 승리의 율계관이 씌워진다는 격언이 존재한다면, 5기생 회원들은 그 격언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저희 5기생 전 회원들은 지난 날의 무관의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가장 단강하고 참수하는 기세로 살아 남고, 그 노력함을 과시하며 동기생 골프, 등산 등 각종 모임을 최대로 환성호실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기생회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과 임원들이 잘 돕고 있고 귀하고 자부해 합니다.

서투른 솜씨로 어렵게 글을 쓰다 보니 지난 날 저희 기생에 관한 모든 원고들 도달이 처리하고 그 고품질 회원의 손질이 아쉬워 지며 타계한 회원의 손재가 다치한번 돌보이는 것은 어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모이면 시끄러운 저희 5기생회의 동정과 근황을 간단히 소개하며 오성회 앞날에 무궁한 번영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신성회 회장 이재우(57) 올림

비성회 동정 (11期生會)

"서울 1기생"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공사 11기생은, 우리의 모교가 6:25 전란으로 피난살이를 겪었던 경남 진해의 가교마을을 청산하고, 지금의 "대방동 비래마을"에 자리잡고 있었다. 신속 교사로 이동한 후 서울에서는 친척교사로 입교한 공사 동기생이다. 그러므로 진해만의 세한 바닷바람을 맞지 못하고 있는 선배기수에 비하여 11기부터는 관악산에 대한 향수가 보다 짙게 배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959년에 입교, 1963년도에 67명이 입관하였고, 90%가 20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하였으며, 그동안 11명이 순직 또는 타계하여 현재 57명이 회

갑들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아직도 2명이 현역으로 국방의 보무를 지키고 있고, 해외에서는 4명이(국내에 51명) 전역 후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서울 1기생”들은 45%가 공중군 무자였고, 55%는 다양한 특기를 가지고 군복전에 헌신하였으며, 대령까지의 진급은 35명이, 장군은 9명이 배출되었다. 박사학위취득자는 7명이나 되어 그중 4명이 아직까지도 대학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조종사 중 11명은 한국을 상징하는 민항공사들에서 지금도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다.

공사 11기생들의 일반적 특징은 “외유내강형 성격”의 소유자들이라 하겠다. 외형으로는 개성들이 온유하게 보이면서도, 항상 “정중동, 동중정”하는 “냉철한 두뇌에 뜨거운 가슴”을 지닌 온건파, 개혁파들이 많아, 조용한 가운데 자기 혁신부터 거듭하는 기생이라고 할하기도 한다.

매월 11일을 기생회원 만남의 날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15~20명 정도가 모이면 즐겁게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하였는데 근간에는 건강증진을 꾀해서 원래 끝프론트 모임으로 대체하고 있다. 11월에는 동기생 부인들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들보다도 더 많이 모여서 집안 경제사들의 상부상조로부터, 해외여행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공사 11기생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해도 이번에 “제24대 공군참모총장”으로 동기생 이광철 장군이 취임한 것으로, 모두들 마음속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안고, “20세기 말엽의 한국국방”에 온 그릇으로 이바지할 것을 믿고 기원한다.

이 태 식(11기)

은성회 보고 (12기생會)

바야흐로 봄은 어느덧 우리곁에 싱그러워왔습니다.

일전에 정기총회에서 미력하고 부족한 저를 동기회장이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동기생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로 동기회직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앞만보고 술차게 고속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를 찾고, 고향을 그리며, 또는 임무를 갖고, 건강도 생각하며 혹은 가족을 보다 성실히 돌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길고긴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여러 계층의 수많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관학교 동기생만큼 오랜 생활과 인연을 가진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웃고 울며 밤 흘리던 사관생도 시절은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꽃봉우리요, 보석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년간 넓은 항공에서, 격단교에서, 사이트에서 또 다른 기지에서 나라 위해 일하며 희생하며, 미운정·고운정으로 세월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기모임은 고향처럼 푸근하고, 느슨하고, 뽀뽀하지 않고, 질서가 없어도 저절로 권이 돌아가는 시골시골한 시골 장터같은, 술잔에 정을 담아 주거나 받거나 술가에 허물어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우리 모두의 모임일 뿐

입니다. 자연발생적이고 자연소멸적인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고 생활경험을 풀어 놓고, 의로운 일도 토론하고 때로는 분한일은 같이 분품이도 하면서 그러다가도 갑자기 인격과 인생과 예술과 우주를 음미하고, 관조하는 지성인들의 묘미가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영국의 민족시인 웰리는 “겨울이 오면 멀리 앉아 봄도 오려니”라고 참으로 사랑받는 시 한귀절을 읊었습니다. 이는 비단 계절의 불만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삶을 반드시 희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이제 가끔 옆도 뒤도 보는 여유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합시다.

12기 은성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파이팅!!

(12기생회장 배기준)

성익회 보고 (15기생會)

21세기에 공군이 나아갈 길 서기 2001년이 5년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21C를 맞이하며 전세계의 우수호텔이나 관광지에서는 벌써부터 예약이 종료되고 있으며, 세계의 미래 학자 등은 21C에 인류가 어떻게 변화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류가 변화를 맞이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옛날에는 이리이러하였는데 지금은 너무 각박하고 세상이나 맛이 없어졌다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에게서 인간적인 친근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조직의 발전을 꾀어 놓을 우려가 있다.

다음은 현상의 변화에 순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변하니 나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으로 변화에 적응한다. 이들은 언제까지나 중간자의 위치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부류는 변화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주도해 나가는 부류가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며, 변화를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유리하도록 이끌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합시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부류는 언제나 조직의 가장 앞에서 조직을 선도하게 된다.

정규 사관학교를 나온 공군의 주역으로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며, 공군이 첨단 과학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우리 공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변화의 선두에서 공군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특성은 모든 첨단학문의 총아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항공산업에 선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잠재능력(인적, 물적, 기술적)을 보유한 집단은 공군이다. 우수한 항공기의 개발을 유도함으

로써 조국의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전에 응용하여 가상의 모든 적으로 부터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현대와 같은 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주어진 분야에서 고도의 과학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첨단장비인 항공기를 운용하여 1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여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할 때 공군은 21C에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대사회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나온 20세기는 개인의 독특한 인격능력이 조직변화에 영향을 끼쳤던 고도의 산업사회에는 획일주의, 전위주의, 집단주의, 보고 우선주의 등이 군의 조직문화로 대표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회의 흐름은 21세기를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이끌며, 이러한 조직문화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군 중에서도 특히 공군은 이를 위하여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조직 속에 융합함으로써 조직의 우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21C의 상황에 적합한 공군의 조직문화라고 한다면, Team 제도의 완성화순과 같은 Teamwork의 형태, 조직이 개인의 능력을 존중함으로써 조직전염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의 창출 등이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핵심적 역할을 주도하는 집단으로서 우리 공군이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사회에 부응하는 군의 독특한 조직문화를 보유하게 될 때, 우리 공군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5기생회장 최용환)

空軍士官學校 開校 以來 歷代 期生 中에서 가장 적은 卒業生을 輩出한 期數가 15期이다.

勿論 자랑은 아니지만 在學期間에 많은 試練과 事件에 接하다 보니 70名이 入校하여 15名이 中途 脫落하고 55名이 任官하였다. 그러나 任官人員에 比하여 操縱士가 가장 많이 輩出되었고 支援分野는 10名 以內이다. 이中에서 4名의 操縱士가 殉職하고 1名이 美國移民 後 病死하여 現在 50名이 空軍과 社會에서 熱心히 奉仕하고 있다.

階級別로 보면 8名의 將軍(現役 小將 3名과)과 22名의 大領(現役 2名)을 輩出하였으며 職業別로 보면 가장 多樣한 職業에 従事하고 있는 期生으로서 各自의 個性이 尙달리 強한 期數로서 大廳航空과 아시아나에 22名, 大學教授 3名, 牧師 3名, 其他 言論界 等 多樣하다.

특히 聖職者 3名이 모두 操縱士出身이며 이를 미루어 보면 어느 期生보다 宗教觀이 가장 뚜렷한 期生이 아닌가 생각된다.

士官學校 卒業生들은 똑같은 생각이었지만 操縱役은 社會 各分野에서 熱心히 奉仕하며 獻身의 道로 일하고, 現役에 남아 選擧된 位置에서 獻身하고 있는 同期生 中에서 空軍의 最高 指揮官으로 成長하여 더욱 空軍을 發展시키고 國家를 爲해 큰일을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期生 모두의 夙願이 아니겠는가?

幸運의 數字 15期! 그들 위에 神의 祝福이 있으리라! (15期 一同)

봉우회 동정 (17期生會)

- 1. 인원현황
 - 입교 : 75명(총퇴 5, 순직 2)
 - 입관 : 68명
 - 현재 : 64명
- 2. 현재진 직업분석(64명)
 - 현역 19명(소참 3, 준참 8, 대령 8)
 - 항공회사 21명(대한항공 12, 아시아나 9, 조종 20, 일반직 1)
 - 이민 4(미국 2, 캐나다 1, 호주 1)
 - 일반인 21(교수 4, 교사 1, 회사원 8, 안기부 1, 자유직업 6)

응비회 동정 (24기생會)

- '95. 9. 전역
 - 고 재 목 : 아시아나 항공
 - 권 오 석 : 아시아나 항공
 - 최 훈 진 : 대한항공
 - 홍 순 화 : 아시아나 항공
- '95. 11. 전역
 - 이 장 세 : 삼성항공
- '95. 12. 전역
 - 이 만 우 : 뉴질랜드 이민
- '96. 4. 전역
 - 류 동 수 : 아시아나 항공
 - 이 기 용 : 대한항공
 - 이 영 재 : 아시아나 항공
 - 주 종 수 : 대한항공
- '96. 6. 전역
 - 송 광 호 : 쌍용 정보통신
- 졸업 및 입관 20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96. 6. 15(토), 10:00~16:00
 - 장 소 : 성무대
 - 주요행사 : 공군사관학교 학교현황 청취, 열병분열 참관, 학교견학, 송풍기회 오찬 및 여류

한돌회 보고 (31기생會)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모교의 동창회 설립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시고 계신 장님과 임원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문서(오성 95-(10)-3)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 31기 동기생회(한돌)는 송풍창회에서 하시는 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서내용에 있는 전역자 중 1명을 해기의 부회장으로 선정, 통보토록 요구한 건은 내년 6월 중선정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현재 전역한 동기생이 소수이며, 아직 사회에서 기반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시기이고, 내년 4월 중 조종분야 동기생들이

13명 가람 전역할 예정이며 이때 전역한 동기생회 결성과 동시에 총동창회 31기 부회장을 선정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회 동기생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리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의 노력에 저

31기생회장 방은상 배상

IV. 空士總同窓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會의 目的은 아래와 같다.

1.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相扶相助
2. 母校의 傳統과 名譽 繼承
3. 母校의 發展에 寄與

第3條(所在地) 本會의 本部는 서울 特別市에 둔다.

第2章 會 員

第4條(會員의 區分)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准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區分한다.

1. 正會員은 空軍士官學校의 正規課程을 履修하고, 卒業 및 任官된 모든 同門들을 包括한다.
2. 准會員은 空軍士官學校에 入校 및 在學은 하였으나 卒業의 榮譽을 누리지 못한 同門들을 指稱한다.
3. 名譽會員은 空軍士官學校와 깊은 緣故가 있는 人士中에서, 理事會에서 推戴, 總會에서 認准한 人士를 指稱한다.

第5條(會員의 權利) 本會 會員의 權利는 아래와 같다.

1. 正會員은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진다. 但, 現役에 服務中인 會員들의 議決權과 選舉權은, 當該 同期會의 豫備役 會員들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豫備役 會員들이 없는 期生會員들은 同期生 會長으로 하여금 總會에 一括 委任할 수 있다. 但, 現役에 服務中인 會員들의 總同窓會 任員으로서의 被選舉權은 留保 또는 免除로 處한다(期生會長職만은 例外로 한다).
2. 准會員은 議決權과 選舉權을 갖는다.

第6條(會員의 義務) 本會 會員의 義務는 會則을 遵守하고 會費分擔의 義務를 가진다.

第7條(資格의 喪失) 會員으로서 本會의 名譽를 損傷시킨 者는 理事會 決議로써 除名과 同時에 會員資格을 喪失한다.

第3章 任 員

第8條(任員의 種類 및 構成) 本會의 任員은 會員 中에서 아래와 같이 構成한다.

1. 會 長 : 1名
2. 副 會 長 : 若干名(常任副會長 1名을 둔다)
3. 監 事 : 2名
4. 理 事 : 100名 內外
5. 事務總長 : 1名

第9條(任員의 選任) 任員의 選任은 會員 中에서 아래와 같이 選任한다.

1. 會長, 副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2. 理事는 各期生會의 一定數 推薦에 依하여 總會에서 選任한다. 但, 各期生會 會長은 當然職 理事가 된다.
3. 常任副會長 및 事務總長은 會長이 委囑한다.

第10條(任員의 任期)

1. 本會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여 1회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2. 任期中 嗣位되거나 有故時에는 理事會에서 構成한后 總會에서 追認을 받기로 하며 構成 任員의 任期는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1條(任員의 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아래와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常任副會長이 會長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會에 參與하여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을 審議한다.
4. 監事는 會務와 會計를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서 報告한다.
5. 事務總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 會務 및 行政業務를 管掌 遂行한다.

第4章 總 會

第12條(總會의 構成) 總會는 正會員 및 准會員 중 會議 當日 參席人員으로 構成하고 會長이 議長이 된다.

但, 各 期生會長 및 本會 理事는 總會 構成 必須要員이 되며, 不得已한 境遇에는 委任狀으로 代할 수 있다.

第13條(總會의 召集) 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으로서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여 다음과 같이 會長이 召集한다.

1. 定期總會 : 每年 1回 召集하며, 會計年度 마감일로부터 90日 以內에 開催한다.
2. 臨時總會 :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本會 理事 3分之 1 以 上의 發議에 依하여 召集할 수 있다.

第14條(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95. 9. 20 간담회 참석자(제4기, 제11기, 제12기)



'95. 9. 21 간담회 참석자(제5기, 제10기)



'95. 9. 22 간담회(제6기)



'96. 4. 10 간담회(제19기, 제20기)

1. 會則 制定 및 改定
2. 任員의 選出
3. 事業計劃과 歲出入 豫算 및 決算의 承認
4. 本會 運營上의 主要事項

第15條(定足數) 總會는 第12條의 構成人員으로서 參府人員으로 成立되고 出席人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5章 理事會

第16條(理事會의 構成)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로 構成한다.

第17條(機能) 理事會는 總會에 對한 常任 議決機關으로서 아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總會에 附議할 諸般事項
2. 會則改定에 關한 事項
3.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4. 財政에 關한 事項
5. 會員 資格 審議 議決에 關한 事項

第18條(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決定할 때 또는 在籍理事 3分の1 以上の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하고 會長이 議長이 된다.

第19條(定足數) 理事會는 構成人員의 出席人員으로 成立되고 出席人員의 過半數로 議決한다.

第20條(諸委員會) 本會의 運營上 必要에 따라 諸委員會와 顧問 및 명예 회장을 둘 수 있다.

第6章 財政

第21條(財源) 本會의 財源은 아래와 같다.

1. 本會任員의 年會費
2. 全會員의 基本會費(年會費 또는 一時會費)
3. 特別贊助金

第22條(監査) 監事는 本會의 會計 및 會務管理事項을 監査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23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7月 1日에 始作하여 翌年 6月 30日에 마감한다.

第7章 一般事項

第24條(期生會와의 關係) 本會는 各 期生會와 相互支援과 期生會間의 意見調整 그리고 必要 情報傳達를 하며 對外的으로는 同窓 機能을 代表한다.

第25條(行政事項) 本會 事務와 特別企劃事業을 圓滑히 處理하기 爲하여 會長 傘下에 必要한 機構를 設置할 수 있으며 職制等 其他事項은 運營規程으로 定한다.

第26條(其他事項) 本會 會則에 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本會 設立目的에 立脚하여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第8章 附則

第27條(執行日) 本會則은 總會에서 議決된 날로부터 發效한다.

(※ 1996年 5月 29日, 理事會 審議· 議決 事項을 訂正, 收錄하였음)

신공항 건설이 남의 일인가?

지금 인천 앞바다 영종도와 울유도 사이 약 1,400만평의 간석지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건설 중인 신국제공항은 미래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21세기 동북아의 거점공항(HUB)으로서 국력신장의 상징적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거대한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은 유사 이래 처음 해보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초기 건설개념(CONSTRUCTION CONCEPT) 설정단계부터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기본계획서 작성 및 설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유용한 의견수렴과 관련되는 민, 관, 군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살펴보면 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종도지역으로 확정하는 데 불과 1년동안에 신속하게 결정 하였으며, 기본계획설계 용역도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1년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대한 비행장 건설사업이 전교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군과 일련의 협의도 없었던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신공항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경험있는 공군요원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삼십 밖의 일일뿐만 아니라 공군의 실력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비행장 건설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은 공군뿐이다. 공군은 참군이라 전국의 여러 지방에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비행장 건설은 광활한 대지 위에 활주로와 유도로, 기타 필요한 시설물을 만드는 토목, 건축사업만이 전부가 아니다. 비행장 건설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비행장 항공관제관 내외에서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비행활동항로와 공역을 설정 확보해 놓고 이와 연계하여 건설부지위에 최적의 활주로 방향을 결정한 다음 그 활주로를 중심으로 하여 기타 유도로와 주기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필요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계획 수립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예정부지 상공의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비행활동공역 확보, 즉 활로결정, 비행장 입·출항 비행경로(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조건에 적합한), 착륙지면에 따른 착륙대기공역, 착륙실제접근에 의한 공중긴급대기공역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활로설정 절차에 따라 설정함으로써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비행환경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보장할 수 있는 공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비행장 주변의 인구밀집지역 상공회피, 항공기 소음 발생을 그로 인한 민원소지의 원천적 제거, 그리고 만일의 항공기 사고 발생시 대원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착륙방향 지역에 안전지대(CLEAR ZONE) 설정 등의 제한적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비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공행운역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비행공역확보와 비행제한요인 분석은 지상의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입체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최적의 활주로 방향설정은 비행공역, 비행제한요인 그리고 연중 평균 풍향/풍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비행공역의 확보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활주로는 운역의 효율성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복수활주로를 건설해도 공중에 충분한 공역확보가 곤란하여 입·출항 비행경로가 복잡하고 여러가지의 비행제약요인이 있다면 항공기운항의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수활주로로서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영종도지역의 입지조건은 어떠한가? 북쪽 40킬로 지점

에 휴전선으로 인한 비행금지선이 설정되어 있고 김포공항, 인천시, 시화지구 그리고 오산, 수원, 서울 비행장과의 관계 등 수많은 비행 제약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어느 곳을 선정하든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항공기 운항과 비행장 운영을 원만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볼 때 초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항공기운항 측면보다 토목, 건축, 도로, 전철 등 지상 시설물 건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완공 후 항공기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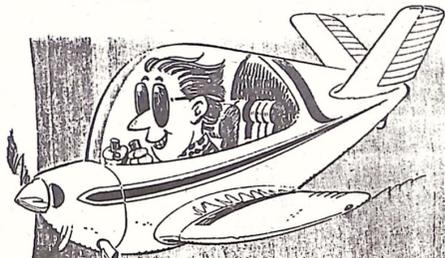
우리 국토에서 건설되는 모든 비행장은 민수용이든 군용이든 공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상호 긴밀한 협조 없는 비행장 운영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남, 북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삼촌해 일부를 뿐만 아니라 국토가 작고 비행활동공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어진 공역지원을 시, 분, 초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 관, 군의 협조체제유지는 물론이고 영공방어의 주체자인 공군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영종도 신국제공항이라고 하더라도 만일의 국가 비상사태는 군의 관리운영이 불가피한 국가방위자산이 되

기 때문에 상호 협조체제유지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군과 긴밀한 협조가 미흡했던 점은 이를 주관한 부서의 틀인식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공군에게도 그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겠다. 신공항 건설은 남의 일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그들이 협조를 요구해 오면 마지못해 도와주었으나 가끔씩 군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의 일로 크게 생각해 보자. 신공항 건설되는 서해 5개 도서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공역통제상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서 공군의 방호책임은 그만큼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도 수도권 상공은 포화상태인데 장차 신공항이 개항되면 더 많은 트래픽(AIR TRAFFIC)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는 군이 수를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영종도의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은 1999년도까지 1단계사업을 완공하고 2010년까지 계속될 방대한 사업으로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완성시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네 일 내 일 가리시 말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잘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건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에서 서도 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수용해야 한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사
공군(예)소장 이 태 식



第3次年度 運營豫算 現況

第3次年度 運營 豫算案

第3次年度('95.7~'96.6) 期生會 및 任員會費 現況

'96. 5 現在

(제3기생회 부담)

(1) 任員懇談會(1期~12期 : 60名)	450,000
(2) 任員懇談會(13期~26期 : 60名)	450,000
(3) 理事會(1-12-26-37期)	1,500,000
(4) 總會(第4次)	2,000,000
(5) 會誌(消息誌) 發行	500,000
(6) 銀나라會(바자會 祝儀)	300,000
(7) 顯忠日 弔花	100,000
(8) 事務室 維持 運營費	1,200,000
電話 및 FAX料 :	300,000
郵便料 :	300,000
事務用品 :	150,000
接客 經費(事務室內) :	150,000
其他 :	200,000
計	7,600,000

納入者	金額	納入者	金額	納入者	金額
1期生會	200,000	趙長成(理事)	100,000	金正麟(理事)	100,000
		金舜經(理事)	100,000	崔奎淳(理事)	100,000
2期生會		李元甲(理事)		吳世一(理事)	
		趙日東(理事)		李文煥(理事)	
3期生會	200,000	樞大鉉(理事)	100,000	金鉉勳(理事)	100,000
金慶福(副會長)	200,000	鄭奎赫(理事)	100,000	高承萬(理事)	100,000
4期生會	200,000	趙鳳九(理事)	100,000	李時雨(理事)	
朴鍾雄(副會長)	200,000	洪在鶴(理事)		崔俊植(理事)	100,000
5期生會	200,000	尹晉鉉(理事)	100,000	朴容穆(理事)	100,000
朴鎔泰(副會長)	200,000	崔泓濬(理事)	100,000	李在雨(理事)	100,000
6期生會	200,000	金錫熙(理事)	100,000	金元根(理事)	100,000
全春雨(副會長)	200,000	許恒茂(理事)	100,000	李善國(理事)	100,000
7期生會	200,000	吳學洙(理事)	100,000	金亨植(理事)	100,000
郭永達(副會長)	200,000	金仁壽(理事)	100,000	金正守(理事)	100,000
8期生會	200,000	金在洙(理事)		金相祿(理事)	100,000
金延泳(副會長)	200,000	白相熙(理事)	100,000	尹大鳳(理事)	100,000
9期生會		韓光熙(理事)		蔡己權(理事)	
高仁菲(副會長)		金相泰(理事)		徐哲洙(理事)	
10期生會		權亨洛(理事)		金完洙(理事)	
金潤珠(副會長)	200,000	金潤濟(理事)		李秉泰(理事)	100,000
11期生會	200,000	明英男(理事)	100,000	金鈺賢(理事)	100,000
李泰植(副會長)	200,000	申炳和(理事)	100,000	安炳洙(理事)	100,000
12期生會		鄭敏男(理事)	100,000	심재윤(理事)	100,000
洪鍾健(副會長)	200,000	朴德熙(理事)	100,000	김문수(理事)	100,000
13期生會		金英夫(理事)		李鍾大(理事)	
孫德圭(副會長)		李勝大(理事)		安炳哲(理事)	
14期生會		金世榮(理事)		韓龍吉(理事)	
尹甲洙(副會長)	200,000	韓正九(理事)		閔信雄(理事)	
15期生會		權基東(理事)		曹國鎰(理事)	
朴邦弘(副會長)		嚴仁준(理事)		金聖德(理事)	
16期生會		金煥東(理事)		康明植(理事)	
吳昌模(副會長)		咸鍾河(理事)		朴성국(理事)	
17期生會		魚秀淵(理事)		俞賢俊(理事)	
宋大成(副會長)		長基鎔(理事)		鄭求鎔(理事)	
18期生會	200,000	金杜淵(理事)	100,000	吳仁成(理事)	100,000
尹管重(副會長)	200,000	尹在勳(理事)	100,000		
19期生會		金復萬(理事)		丁成鎔(理事)	
片世榮(副會長)		庚炳權(理事)		전재구(理事)	
20期生會		李四龍(理事)	100,000	韓俊洙(理事)	100,000
金永柱(副會長)		崔秀信(理事)		임성남(理事)	

第3次年度 豫算現況 (1995. 7~1996. 6)

'96. 5. 25現在

收金 計劃, 任員會費	15,600,000
特別 贊助金(3期)	6,600,000
計	22,200,000

現入金額	10,700,000
支出	2,709,490
殘額	7,990,510
※ 未收金	11,500,000

3次年度 運營費 特別 贊助金 納入 現況

崔恒基(3期)	1,000,000	金慶福(3期)	1,000,000
金仁基(3期)	1,000,000	李仁行(3期)	1,000,000
沈煥燮(3期)	1,000,000	鄭奎赫(3期)	300,000
李明完(3期)	1,000,000	曹博賢(3期)	500,000
趙沼夏(3期)	300,000	嚴龍植(3期)	300,000

第3次年度 會長職分을 마감하면서!

會長 崔 恒 基(3期)

1. "始作이 半"

五星會(空士總同窓會)가 여러 어려운 産苦 끝에 再創立되어 航進을 始作할 수 있었던 것은, 約 3年前인 1993年度의 勳이였습니다. 初代 및 2代 會長님들께서는 어려운 條件下에서 "五星會"라는 苗木을 다시 심으셨고, 이 苗木이 將次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茁壯한 外形의 人 材들을 마련하여 주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本會(總同窓會) 會則의 定立", "第12期 卒業生에 이르기까지의 本會 任員의 組織", "本會 事務室과 所要備品들의 確保", 그리고 一定額이긴 하지만 將次 本會의 茁壯한 事業들에 쓰여질 誠金들(各期의 任員님들과 篤志會員님들의)을 모아 "基金의 設立을 開始하신 일들"은 그 代表的인 業績이면서, "茁壯한 外形의 人 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綿綿히 이어져 나아가야 할 空士同窓會의 "始作이 半"이

입니다.

2. "나머지 半의 課題들"

"심어진 한 그루의 苗木"이 잘 뿌리를 내려서 차츰 자라나게 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가지가 뻗고, 크고 작은 茁壯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成長을 거듭하여 한 茁壯한 巨木이 되어 쓰임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오랜 歲月들이 所要되는 것이 自然의 理致인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은 精誠과

努力"에 못지 않는 "가꾸고 보살피는 精誠(사랑)과 努力"들이 繼續될 때만 비로소 可能하다는 前提와 條件들이 있다는 것도 事實(理致)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꾸고 보살피는 精誠과 努力"을 이란 ;

- 五星會의 苗木이 確實히 着根할 수 있는 "좋은 土壤"에 심어져 있는지?"를 거듭 살피고 補充하는 일들이며,
- 가뭄이 닥쳐와도 供給할 수 있는 "良質의 물들"을 넉넉히 準備하는 일들이고, 또 戒是,
- 거센 暴風雨가 불어닥쳐도 "能히 保護될 수 있는 防風裝置"들을 마련도 하고,
- 不良·不諳한 感染病菌들이 스며들더라도 "充分히 剪다듬어 이겨낼 수 있는 體質"로 만들어 가는

일들이 아니겠는지? 하고 여겨집니다.

이들, "가우고 보살피는 精誠과 努力들"이 眞實하게 實踐에 옮겨지면서 年輪이 거듭될 때; 일어진 "敝弱한 五星會의 苗木"이 언저인 가는 "좋은 巨木"으로 成長하고, "아름다운 숲(森)"을 이루어 萬人들에게 新鮮함과 기쁨들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믿으면서, 함께 祈願하여 마치 않는 바입니다.

3. "第3次年度의 行跡과 未洽했던 일들"

第3期 卒業生들이 작은 精誠들을 모아 힘써 進發하여 온 第3次年度의 課題들은 未洽하였지만, 한마디로 "세워진 1,2次年度의 外形의 基礎" 위에 "空土同窓會의 內面的인 기쁨들을 補完하는 일들이었다"고 自省하여 씁니다.

◎ 그 첫째는 本會의 設立目的인: (1) 會員간의 親睦과 相助, (2) 母校의 傳統과 名譽의 繼承, (3) 母校의 發展에 寄與하는 일들이 果然 具體적으로 무엇이었는지? "第20期까지에 이르는 同門會員님들과 함께 模索하여 본 일이었습니까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未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第(2)項의 "空土校의 傳統"은 果然 무엇이며, "空土人들의 名譽"란 果然 무엇인지를, 概略적으로나마 定立을 못하게 된 것이 크게 아쉽고 一面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開校 50周年을 目前에 두고 있는 時節에서, 後續 任員님들을 中心으로 모든 卒業同門들이 함께 보다 眞摯하고 深遠하게 追求하여 定立되어야 할 가장 重要한 共通課題 中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일은 바로, "空土와 空土人들의 正體性(identity)"을 우리 自身들이 바르게 確認함으로써 定立目的에 符應하는 善한 業務의 方向도 그 뜻이 있고, 또 永續되어 질 힘의 源泉이 될 수 있기 때문이 겠습니다.

◎ 두번째의 課題(第3次年度의)는, "本會 組織의 擴大와 活性化의 기쁨을 마련하는 일"이 었습니다. 第12期까지의 豫備役 同門들에게만 局限되어 있는 本會 組織을 優先,

(1) 모든 豫備役 同門들을 빠짐없이 本會에 迎入하고(現會則에 依據), (2) 現役に 服務中인 모든 卒業 同門들까지도 現行法과 規例에서 包括하고, 同窓會內에서의 位相을 明確하게 定立하는 일이 었습니다(現會則의 補完 事項).

多幸스럽게도 이 두번째의 課題들은 第13期 同門 以後의 現職期 生會 會長님들과 그 豫備役同門들의 積極적이고 獻身的인 同參과, 그리고 前職 參謀總長 金鴻來 同門과 現職 李光學 同門의 本會에 對한 남다른 사랑과 深慮와 直間接的인 支援과 助言들의 微分으로 結實을 보게 된 것을 感謝하여 면서 第4次年度부터는 名實共起, 其 이름에 相符合되는 "空土 總同窓會"가 되어 질 것을 期待하며, 祈願 합니다.

다만, 豫備役 同門들에 依한 本會 任員組織이 第20期 同門들에 이르기까지 擴大 를 보았고, 第21期~25期까지의 本會 任員組織은 進行中에 있음을 좀 아쉽게 여겨 지기도 합니다. 第26期 以後의 後繼同門들의 期 生會의 本會 任員組織은: 該當 期 生會의 豫備役 同門들의 數(最少: 20名~30名 以上)와 其 與件들을 勘案하여 順次의 으로 擴大되어 나 아가 질 事項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세번째의 課題는: 本會 出帆 後 지난 3年 동안 계속 "懸案"으

로 이루어져 내려 온 "會則 第21條(本會 財源) 2項: 全會員의 基本 會費(年會費 또는 一時會費)"에 關한 施行基準를 定立하여 實踐에 옮겨 지고 있는 課題였습니 다. 가장 艱難하고 어려운 難題이기도 하였습 니다.

開校 50周年(1999. 3. 15)과 첫 卒業生 輩出 50周年(2001. 8. 5)을 앞두고, "自助·自立의 基礎를 이 룩할 때"라는 認識들이 共感되고, 第20期 同門會에 이르는 本會 任 員님들과의 合意들을 收斂하여, 第 3次年度를 마감하는 理事會와 總 會의 審議案件(Ⅳ)으로 上程되었으 므로, 第4次年度부터는 施行이 可 能하게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 니다(5月 29日의 理事會에서 合 意를 보게 되었습니 다).

모든 同門들의 "母校와 同門會 에 對한 사랑의 同參"들이 있게 될 것으로 믿고 希冀하면서, 第 4次年度 以後 本會 任員님들과 各 期 同門會 任員님들에서 特別히 溫 柔하고 勸勉한 가운데, 많은 苦 고들이 있어야 할 事項이 겠습니 다. 決코 서두르거나 強硬되어서는 안 될 事項이지만, 各 任員님들께서는 거 듭된 努力과 精誠들이 中斷되거 나 포기되어서는 또한 안될 것으 로 여겨집니다(理事會 案件: Ⅲ 及 Ⅳ 參照).



4. "그밖의 일들"

同窓會의 定着과 成長의 기쁨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1年 동안 출 처 未詳이 었던 몇 가지 重要 事 項들을 적어 놓는 것이 第4次年度 以後의 進發에 적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여겨집니다.

가. 會長 및 任員의 任期에 關한 事項:

會則 第10條(任員의 任期)에 依 하면, 本會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第2次年度 의 任員會議(95年 6月: 1期~12期 까지의 副會長)"에서의 多數 意見 以 "本會의 基礎이 어느 程度 造 成되고 定立되어 질 때까지는, 該 當 期 生會의 共同 責任下에 1年間式 順次의 으로 會長職分을 履行하는 것이 現在로서는 가장 妥當한 方 案"인 것으로 合意를 보았습니 다.

任期(1年)가 짧아지고는 하지만 "期生會 共同 責任下의 進發"이 常分間은 長點이 많을 것으로 여 겨지고 있습니다. 勿論, 第13期 以後의 任員님들까지 勿論, 앞으로 眞摯하게 研究되고 合意되어서 보 다 效果의 인 方案들이 浮出될 수 있는 事項이 겠습니다.

本會 理事님들의 任期는 各期別 與件과 形使에 따라 會則을 變更 치 않고서도 伸縮的인 運用이 可 能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本會의 名稱에 關한 事項:

會則 第1條(名稱)에 關하여서는 (五星會), 發起 及 創立 總會 階 段 로부터 後進期收 代表들의 異議가 提起되어 왔습니 다. 지난 1年 間의 各期別 任員 懇談會와 公式 書信(期生會의)을 通하여 本 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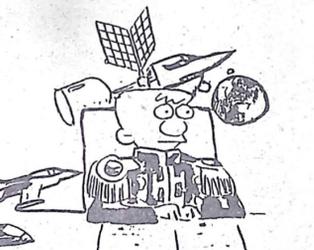
는: 20個 期生會中, 17個 期生會 에서 改定을 強力히 願하고 있 어서 第3次年度의 理事會에서 公式 論議되어 總會에 反映될 展望下에 있습니 다.

全員の 一致된 意見들이 바람직 하겠습니까만, 名分이 뚜렷하고, 各 期 代表들의 絕對多數가 願하면, 現 名稱(五星會)을 改定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星武寮會).

其他, "過去의 五星會 基金"에 關한 論議가 一部에서 提起되고 있습니 다. 理事會에서 議題의 採 擇 與否를 決定하게 될 것입니다. 可能하면 "모든 同門들에게서 로 德이 될 수 없는 過去의 事案 들"은 一掃 몰아 두시고, 밝은 21 世紀의 미래를 志向한 事案들이 論 議되는 것이 보다 즐거운 결 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同窓會 進發基金에 關한 事項:

第3次年度 理事會와 總會 審議 案件: Ⅲ, Ⅳ(本會 任員會費 및 會 員의 基本會費)이 原案대로 合意를 보게 된 다면, 앞으로 2~3年 또는 3~5年 內에는 同窓會 基金이 어 는 程度 目標水準에 이르게 될 것 으로 期待됩니다만, 그때까지는 可 及的인 年間 進發費의 支出을



最少限度로 節用 또는 抑制되어야 하지 않겠는지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年 동안 의 進發費 支出이 正常인 것이었다 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過渡 期의 現象이 겠습니다).

◎ 第1次年度에는, 第10期까지의 任員會費와 一部 贊助金으로 創立 準備金(諸般會費와 創立總會等)으로 使用되고, 約 100만원이 第2次 年度로 移越되었었고,

◎ 第2次年度에는, 모든 年間 進 發費가 會長 個人의 私財로 充當 되고, 12期會까지의 任員會費와 特 別 贊助金과 移越金을 全額, 長期 貯蓄(約 2,000만원)되어 있습니 다.

◎ 第3次年度의 進發費는 第3期 生會에서 負擔하였고, 釀出된 任員 會費(1期~20期)는 또한 全額을 基 金으로 追加 長期貯蓄할 豫定으로 있습니 다.

第4次年度부터는, 그러나 基金의 積立이 어느 程度까지는 加進化될 展望이므로 반드시 不可避하게 過 渡期의 先例들이 그 基礎이 될 수는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必須的인 事案들(審議案件: Ⅰ 의 內容에 對한 對한 支出은: 正當의 節次(任員會費 또는 理事會 議)를 거쳐, 既 積立된 基金으로 부터 라도 引出하여 使用되어야 지만 同 窓會 進發이 正常인 軌道로 漸 次 進入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 諸委員會와 地域別 親睦 機構의 設立 活性化:

會則 第20條에 "本會 進發上 必要 에 따라 諸委員會를 둘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 다.

第3次年度에 假稱 "會誌編纂委 員會"를 稼動토록 試圖해 보았습 니다만 如欲치 못하였음을 慚慚스 럽게 여겨집니다. 社會 全般이 機能

化·情報化 時代로 急進展하고 있 는 狀況이므로, 會員들의 專門 機能 別로 數個의 "諸委員會"를 各 副會長 責任下에 稼動시키게 된다 면, 同窓會 會誌 發刊을 爲始한 地 域別 親睦 機構의 活性化와 發展 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지면서, 그 기쁨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게 여겨집니다.

특히, "地域別 親睦機構의 稼動 과 活性化 課題"는 本會의 母體組 織이 定着化되어 질 第4次年度 以後부터 透明하고 公平하게 優先 海外에 居住하는 卒業同門들부터 稼動되어 나아가 질 다면, 同窓會 活性化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美洲의 一部地域에서는 이미 自體의 으로 地域同門會가 發 達·進發되고 있는 實情이기도 합 니다).

5. "맺는 말씀"

陸士와 海士의 開校 50周年 行 事들이 5月中에 各 各 있었습니다. 남들의 흥내를 낸다는 次元을 떠 나서, 半世紀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고 가꾸기 爲해서라도 卒業同門들 모두가 함께 意見을 모으고, 物心兩面의 크 고 작은 精誠들을 徹澈하여, 敝弱 된 開校 50周年을 맞이하고, 새로 온 半世紀에 이르는 慶慶의 기쁨 들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空土同窓會의 善한 열매들"은 바로 우리 모든 卒業同門 自身들의 보다 값진 喜들을 더욱 潤澤하게 만들고, 縮縮히 이어질 우리들의 後 進들에게는 "祖國領空 守衛의 健全 한 뒷방울"이 되며, 이 나라 社會 人들에게는 實(出身)人들에 對한 주 터 온 信賴와 사랑들로서 심어 주 될 것이기 때문이 겠습니다.

◎ 지난 1年 동안, 總同窓會 進 發에 物心兩面의 다양한 支援과 禮 儀 接을 아끼지 않았던 第3期 會長 任 員同門 여러분과 私財를 털어 넣 으면서 恒常 事務室을 지키시면서 많은 수고를 받당하여 주신 高承 萬 同門(本會 事務總長: 3期)께 感謝 를 드립니다.

◎ 많은 수고 가운데 精誠들을 다하여 주신 第20期會에 이르는 本會 任員님들의 物心兩面의 獻身 들과, 第21期會 以後의 期生會 會長님들께도 깊은 感謝를 傳합 니다.

◎ 本會 基礎造成에 많은 사람과 深慮 가운데 直間接的인 支援과 禮 儀 接을 보내주신 前任 金鴻來 空 軍參謀總長님과, 現職 李光學 參謀 總長님께, 特別히 卒業同門들 모두 의 衷情어린 感謝들을 담아 보냈 니다.

◎ 現役に 힘을 담고 계신 모든 同 門들께서: 萬결같이, 더욱 健勝하신 가운데, "統一祖國 領空防禦"의 그 날들을 準備하시면서, 오늘의 賦課 된 所任들을 完遂하여 주시길, 豫備 同門들 모두의 衷心으로부터의 激 勵와 聲援과 祈禱를 담아 보냈습니 다.

特別히 지난 5月, 北韓에서 歸還 한 MIG-19機 操縱士(李大尉)를 安 全하게 誘導하는데, 平素 쌓으신 技 倆들을 沈着하게 發揮하여서, 國民 들의 마음을 空土로 하게 만들어 주 신 同門諸位께 空土卒業 同門 모두 의 拍手들을 보냈습니 다.

끝으로 空土同窓會의 後繼 任員 님들의 "쉬지 않되, 서두르지 않는 智慧와 努力"을 祈願하여 마치 않 습니다. 或是라도, 또 一時라도 "目 前의 나무(木)에 가려져서, 저 멀리 淺處까지 展開되어 있는 숲(森)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지지 않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우리 星武寮人들이 바라다 보는 숲(森)은: "이 나라의 健實한 國防

이요", "統一祖國의 領空守護요", "星武臺의 출기찬 發展" 그리고 "星武臺 出身人들 모두의 값진 삶"들이

아니겠는지 여겨집니다.

空士出身人들의 값진 삶들이 同

窓俞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裝飾되어 나아가질 것을 믿고, 祈願드리면서, "第3次年度의 會長職分을 마

감하면서 드리는 글"로 가름하겠습니다.



港需要 分散을 圖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산, 제주공항의 國際化에 이어 광주, 대구, 청주의 中部 國際空港과 東海岸空港의 國際空港化를 推進中에 있습니다.

3. 航空運送手段(航空機)의 發達

늘어나는 航空交易量을 迅速하고 安全하게 管制하기 위해서 새로운 航路管制시스템(ARTCS - Air Route Traffic Control System)인 未來航行시스템(FANS - Future Air Navigation System)이 開發中에 있습니다.

未來航行시스템(FANS)에서는 航空機가 飛行시 現在 慣性航法裝置

주, 中國에 이어 世界 9位로 부상한 것은 複數民航體制確立으로 競爭原理을 複次한 結果라고 봅니다.

6. 世界航空社間의 提携(Global Alliancd)

世界 航空運送業界의 變化 중 또 하나의 特徴을 수 있는 現狀은 航空

항공운송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박 용 태(5期) 아시아나항공 상임고문

1. 航空運送增加 趨勢

世界 經濟는 아시아 太平洋地域을 中心으로 持續적인 成長을 하고 있으며 國家間의 交易量은 날로 增加一路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航空運送 需要는 꾸준한 增加趨勢에 있으며, 世界 航空運送業界는 '80년대의 油類波動과 '90년의 景氣蕭條로 한때 不況을 맞기도 하였으나 환기찬 發展과 變化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世界 航空運送 增加趨勢를 보면 연간 6.5%의 成長을 나타내고 있으며, 向後 10년간은 年間 약 6%의 成長을 이룰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韓國은 持續적인 經濟 高度成長과 '88 서울올림픽 및 旅行自由化 措置로 航空需要가 크게 伸張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이 出帆한 '88년 以後 년간 약 13%의 驚異적인 成長을 이룩하였습니다.

向後 2000년대에도 年 平均 10% 내지 11%의 高成長을 持續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全 世界의 航空交通量 增加는 既存 空港施設의 不足現狀과 航路의 飽和狀態를 招來하게 되었으며, 이를 解決하기 위한 手段으로 世界各國은 新空港建設, 地方空港의 國際化, 大輸送手段의 開發, 그리고 새로운 航路管制 體制의 構築 등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新空港 建設 및 地方空港의 國際化

지금 世界 모든 나라들은 늘어나는 航空需要를 堪當하고, 世界化· 情報化 推進의 前哨基地 役割을 遂行하게 될 新空港建設에 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웃 日本은 이미 오사카, 關西 新空港을 '94년 9월에 開港하였으며 東京에 하네다와 나리타공항에 이어 제3의 新空港建設을 計劃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靑洲, 방콕의 暹羅, 말레이시아의 峇株, 호주 시드니, 마카오 新空港 등 世界各國은 競爭으로 新空港을 建設中에 있습니다.

韓國도 金浦空港의 受容能力 限界로 向後 增加하는 航空需要를 堪當할 수 없다고 判斷하여 永宗島에 首都圈 新國際空港을 建設中에 있습니다.

永宗島 新空港은 東北아시아 地域의 中心空港(HUB) 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이며 2000년에 開港을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同 空港은 顧客의 便宜을 最優先으로 하고 運輸效率 增大와 安全運輸 確保에 焦點을 두고 있으며, 輸送需要 증가는 따라 段階別로 擴張하여 最終段階인 2040년에는 年間 1억명을 輸送할 수 있는 世界的 規模의 空港이 될 것입니다.

또한 世界各國은 航空輸送의 關門 役割을 하고 있는 中心空港(HUB)의 飽和狀態를 緩和하기 위해 地方 空港의 國際化를 積極 推進하여 空

가. 大輸送 手段 開發

날로 늘어나는 航空需要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한 方案으로 미국 BOEING 사에서는 雙發 ENGINE으로 一時에 400여명을 輸送할 수 있는 B777항공기를 開發 生産中에 있으며, 世界 主要 航空機 製作會社들은 600명 내지 800명을 同時에 輸送할 수 있는 超大型航空機(VLCT:Very Large Commercial Transport)를 開發中에 있습니다. 보잉사는 B7X7,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MD12, 에어버스사는 A350으로 불리우는 超大型航空機를 앞 다퉈서 競爭으로 開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莫大한 開發費를 어떤 一個 航空機 製作會社가 부담하기에 는 너무나 방대하여 미국의 BOEING社와 AIRBUS社 日 韓 兩國인 불란서, 영국, 독일 등의 航空機 製作會社들이 共同開發토록 合意하였으나 미국의 BOEING社가 아직 市場의 未成熟으로 超大型機開發이 時機未及라는 理由를 들어 콘소시움에서 脫退함으로써 AIRBUS社가 獨自開發을 摸索中에 있습니다.

美國 BOEING社는 市場調査 結果 向後 2010년까지는 超大型機의 實用化가 어렵다고 보고 現在 運航中인 B747 JUMBO機의 동체를 延長시켜 約500명을 同時에 運送할 수 있는 B747-600開發에 着手하였으며 向後 2000년에는 實用化될 展望입니다.

나. 超音速旅客機 開發

더욱 빨리 目的地에 가고자하는 人間의 欲望을 充足하기 위해 새로운 超音速旅客機(HSCT:High Commercial Transport) 開發이 美國, 日本 및 歐羅巴 등의 先進 航空産業 國家間에 激烈한 競爭을 벌이고 있습니다.

現在 運航中인 英佛合作 超音速旅客機 "콩코드"는 運航經費의 過多, 騒音問題, 座席數의 制限 등으로 採算성이 맞지 않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새로 登場할 超音速旅客機의 技術開發을 통해 "콩코드"旅客機의 短點을 補充하여 座席當 運航單價를 現在 運航中인 B747 級 運航單價의 對等한 水準으로 낮추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登場할 超音速旅客機의 座席數는 "콩코드"항공機の 두배인 200석, 속도는 Mach 2.5, 航路距離는 약 5,000NM로 美國 북서부도시 시애틀에서 東京 등 東北亞 主要都市로 運航이 可能할 것으로 보며, 빠른 2005년 내지 2010년경에 實用化될 것으로 展望합니다.

永宗島 新空港은 이와 같은 超大型 運送機와 超音速旅客機 運航에 맞는 諸般 施設을 갖추도록 計劃하고 있습니다.

4. 未來航行시스템(FANS) 開發

INS - Inertial Navigation System)를 利用하는 航行시스템에서 航行衛星의 誘導를 받아 飛行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航行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 高度의 精密航法이 可能하게 됩니다.

現在 運航中인 INS 航法裝置는 大洋灣日時, 敗마일의 오차가 생기나, GPS航法裝置는 敗마일의 오차밖에 생기지 않으며 空港에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即 GPS의 Ground Reference Station을 설치하면 ILS와 같은 計器接近裝置 없이도 GPS裝置를 利用하여 精密接近 着陸이 可能하게 됩니다.

그리고 航路管制시스템(ARTCS)은 現在 레이더 및 通信에 의한 管制方式에서 航空機의 飛行에 관한 모든 디지털 資料가 通信衛星(SETCON)을 통해 地上의 管制소에 傳送되는 ADRS(Automatic Dependent Reporting System)체제로 轉換되어 航空機가 어느 空間을 飛行하던지 現在位置, 飛行高度, 運航速度, 飛行方位 등을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게 됩니다.

未來航行시스템(FANS) 開發이 完了되면 大洋을 橫斷하는 航空機가 지금처럼 차를 기다려 항로를 따라 飛行하지 않고, 自由航路를 選擇하여 飛行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항공기가 더 迅速하고 安全하게 目的地로 飛行할 수 있게 되므로 航路 飽和 現像이 解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現行 航路管制체제(ARTCS)를 2002년까지 새로운 未來航行시스템(FANS)으로 轉換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5. 政府의 規制緩和와 複數民航體制 確立

이와 같이 激發하는 航空運送業界의 變態에 能動的이고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先進諸國은 從前의 規制 一邊倒의 航空政策에서 脫皮하여 果敢한 規制緩和로 業界의 自律經營을 獎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航空需要 增加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複數民航體制를 導入하여 供給을 增大하고 서비스 改善을 圖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國際的 趨勢에 부응하여 1988년에 제2민항 "아시아나항공"이 出帆하게 되었습니다.

제2민항 出帆으로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向上되었으며 供給增大로 乘客의 搭乘難이 解消하고 選擇의 폭을 넓혀주는 뿐만 아니라 國籍航空社의 市場占有率을 向上시키는 등 매우 肯定的인 成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민항이 出帆하던 1988年 航空運送實績面에서 世界 20位圈이던 우리나라가 1995년도에는 美國, 英國, 日本, 러시아, 독일, 프랑스, 호

社間의 提携를 들 수 있습니다.

航空需要 增加로 인해 航空社數가 늘어나고 또 航空社의 大體化(Mega Carrier)現狀이 나타나고 있으며, 航空市場에서는 熾烈한 競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世界 各國 航空社들은 無限競爭에서 生存하기 위한 手段으로 航空社間 業務 提携를 통한 競爭力 提高에 힘쓰고 있습니다.

航空社들이 相互提携를 하게 되면 自社의 航空機를 投入하지 않고 도 路線網을 擴張할 수 있으며 運航回數 增進效果를 누리게 되어 市場 競爭에서 有利한 高地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航空社間의 業務 提携에는 마켓팅提携, 技術提携, 便名共同使用, 共同運航, 資本交換, 企業合併 등 다양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航空社間의 提携의 代表인 例로 British Airways와 US - Air, Northwest Airlines과 KLM 그리고 Singapore Airlines, Swiss Air 및 Delta Airlines간의 三者 提携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서울과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호놀룰루, 시애틀 등 6개 노선에서 노스웨스트항공사와 便名共同使用 方式에 의한 共同運航을 하고 있으며, 大韓航空 역시 太平洋洋線에서 Air - Canada 및 Delta 항공 그리고 南太平洋 노선에서 Air - New Zealand와 共同運航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航空運送産業은 한 社會가 單獨으로 競爭해서 는 勝利하기 어려우며 좋은 파트너와 짝을 이루어 多角的인 業務提携를 實現하는 것이 熾烈한 競爭에서 이기는 關鍵이 될 것으로 봅니다.

7. 맺음말

世界 各國은 제각기 航空産業發達을 통한 國家繁榮을 꾀하는 航空立國政策을 강력히 推進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航空運送事業은 韓國經濟의 飛躍의 開發과 複數民航體制 導入 그리고 世界 航空運送의 持續적인 成長에 힘입어 눈부신 發展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成長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21세기 國境없는 經濟競爭에 측면한 우리는 急變하는 世界 航空市場 條件과 熾烈한 無限競爭 狀況에서 生存하고, 勝利하기 위하여서는 航空運送業界뿐만 아니라 學界와 政府 그리고 國民이 共同으로 努力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航空社는 끊임없는 顧客滿足을 위한 能力開發과 經營合理化에 精進해야 하며 政府는 果敢한 規制緩和로 航空社 自律經營을 保障하는 政策을 推進하여야 하고, 學界는 合

理의인 航空政策理論과 競争理論을 開發 支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 國民은 航空産業 發展을 위해 아 낌없는 支援을 보내줄때 우리 航空産

業은世界 航空産業을 先導하는 超一 流企業으로 發展할 것이며, 우리나라

는世界航空의 中心國으로 浮上하리 라고 確信합니다.

“선비도 精神과 바람직한 五星人像”

희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우리 인간은 동물적 개체로 탄생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생존하고 인격을 형성하면서 창조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서로 모여 서로 의지하고 바람직한 삶의 조직을 만든다. 가정이나 사회, 공공단체나 군대, 국가나 국제연합의 살림에 이르기 까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삶의 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은 공간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고립되어 살 수 없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유기적 연속성을 가지고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값진 유산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 통찰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인 오성회의 부활은 통시적 전통과 공시적 시대감각, 참여의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유하게 된 우리 오성인의 힘찬 전진이며 비약의 약속이다.

오성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젊음과 꿈과 정열을 다바쳐 "삼천만의 불침번"으로 조국의 영공을 수호했으며,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조국과 하늘과 모교에 대한 작은 봉사과 헌신을 다하기 위해 首路初心의 심정으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모교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인 오성

회가 긴 동면 끝에 다시 깨어나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힘찬 전진과 웅대한 비약의 나라를 펴기 시작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와 국가이ink과 부국강병만이 최고 선으로 간주되는 국제사회에서는 밀림(Jungle) 법칙, 운동(SPORTS) 법칙과 협동·조화의 창조법칙이 혼란되고 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어느 법칙이 우세하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미개사회 문명사회 이상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미개사회에서 생존전략은 지연, 현연, 학연의 파벌의 식, 소아와 私利私慾에 최고 가치를 두는 한국병을 탐구하고 국가 발전과 민족의 繁榮, 대아와 대의를 위해서 대통단결하여 부국강병과 국민복을 도모하는 길이다.

한편 서양이 주도하고 서요서기 사상이 지배하는 현대문명사회에서는 신사도의 정신으로 공명정대하고 전력투구로 최선을 다하고 관용하는 SPORTS정신만이 국제화 정보화 첨단화 민주화로 대표되는 세계화시대의 자유경쟁과 무한경쟁과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제2물결(2ND Wave)의 HARDWARE 문명은 서양이 주도했으며, 제3물결(3ND Wave)의 SOFTWARE 문명은 일본이 주도하기 시작하여 동양으로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으며, 제4물결(4TH Wave)의 HUMANWARE 문명은 동양의 한자문화권이 특히 한국과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섬금하게 豫測하는 학자가 있다.

협동 조화 창조 의 이상적 사회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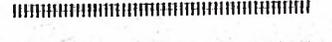
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번영을 驅歌하는 새로운 물결, HUMANWARE 문명이 밀려올 때 한국 고유의 선비사상과 선비도가 중국의 군자도와 같이 동도동기 사상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인류의 시발점으로부터 서기 170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인간이 축적한 기술의 총합은 그 후 200년 즉 1900년까지의 기간에 두 배로 늘어났으며 서기 1900~1960년 사이의 60년 동안에 두 배가 서기 1960~1970년 사이의 10년 기간에 또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에는 두 배로 증가하는 기간이 7년으로, 지금은 1~2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항공우주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 통찰력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다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역사의 위안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현명한 인간은 개혁과 변화와 발전을 미리 내다보고 적응한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뒤늦게 깨닫고 대응한다. 한편 우둔한 자는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시행착오를 되풀이 한다.

오성인은 한국 고유의 전통사상인 선비도의 청빈과 주충군사상, 구국제민과 선공후사 논리, 결리증, 화합과 조화, 사회참여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 세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 세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 넓은 태양계를 지나 대은하를 건너 광대무변한 우주의 세계로 힘차게 비약할 수 있는 항공우주인이 되어야겠다.

미국의 시인 HOLMES(OLIVER WENDELL 1809~1894)의 말처럼 우리가 현재 서있는 위치보다는 우리가 부단히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중요함을 명심해야겠다.

"위대한 일이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라기 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이다. 천국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순풍을 타고 때로는 역풍에 맞서서 항해해야 한다. 이리저리 표류하면 서로 맞을 내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오성인은 협동단결하여 미개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고, 운동(SPORTS)정신으로 문명사회의 자유경쟁 무한경쟁에서 승리하며, 선비도와 선비정신의 계승·발전으로 이 땅의 이상사회를 지향한 창조적 협동과 조화를 성취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한 층의 모래를 보태어 나아가야 하겠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 안에서 최고, 최선의 모임이 되도록 원대한 목표를 정립하고 오성회를 육성·발전시키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진심, 조국과 겨레와 하늘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

오성회지의 뜻깊은 창간을 맞이하여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오성인의 협동, 협조,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오성회가 착실하게 전진하고 힘차게 비약하기를 기원한다.

明 英 男(11期)

美 空士生徒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君 돕기운동에 同參합니다!

- 母校의 생도와 동문들께서는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군 돕기운동에 이미 앞장서고 있습니다.
- 豫備役 諸 동문들께서도 차제에 이 작은 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시어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나갑시다.
- 뜻이 계신 동문들께서는 「1만원」을 기준으로 '96년 7월말까지 본회 구좌(조흥은행 372-06-310288 최항기(오성회))로 입금하여 주시면, 제4차년도 임원진에 의해 가려한 정성들을 모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사 총 동 창 회 장

“編輯 後記 및 寄稿文案內”

本 會誌에 담아, 다음 半世紀들을 엮어 나아가갈 모든 卒業 同門들의 自由 寄稿文을 恒常 歡迎합니다.

- ① 期生會 動靜 또는 消息은 : 200字 × 5枚 內外로 하고,
- ② 會員들의 自由 寄稿文은 : 題目이나, 枚數에 制限은 없으나, 發行 週期와 形便에 따라, 部分的으로 調節·掲載되겠습니다.
- ③ 今番의 寄稿文 가운데 紙面의 制約으로 :
 - 선비도 精神과 바람직한 五星人像(明英男 同門 : 11期)
 - 詩想 形成에서의 主觀의 作用 (박웅진 同門 : 4期)
 - 新 公항건설이 남의 일인가? (이태식 同門 : 11期)에 關한 글들을 모두 다 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깁니다!

郵便住所 :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 1178 空士總同窓會(150-057)
電 話 : (02) 845-1090, FAX : (02) 845-1091

會誌(2號) 編輯 및 發行人 드림